

지역 매 아리

상관면 국민임대주택 들어선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제19기 출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회장 정성모) 제19기가 출범했다.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는 군청 1층 대회의실(구 문화강좌실)에서 자문위원 및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기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제19기 완주군협의회는 42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됐으며,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박성일 완주군수가 제19기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수했으며, 자문위원들은 선서를 통해 제19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선서, 취임사, 축사, 제19기 활동방향 및 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18기에 이어 19기 협의회장으로 임명된 정성모 협의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여론을 선도하는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평화통일이라는 한민족의 숙명적 사명을 실현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완주군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원주=이중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치매선별검사 검진

김제시보건소(소장 김경희) 치매안심센터는 10월 진봉면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만경읍, 용지면 각 지역 경로당에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팀이 직접 방문하여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치매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60세 이상 어르신인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치매검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를 협약병원과 연계하여 조기에 치매를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치매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치매 환자 및 치매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김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간호사에 의해 더욱 정밀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상담, 진료 후 협력병원에 치매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신리 일원 135세대 LH업무협약 체결... 마을정비사업도 병행

완주군 상관면에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선다.

22일 완주군은 박성일 완주군수와 임정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관면 신리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135세대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주거 목적을 위해 건립되는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와는 달리 주민과 지자체, LH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정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면서 마을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8월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이후 현지실사 등을 거쳐 12월 국토교통부 심사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완주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비 57억, 기금 64억, LH 60억, 군비 23억 등 총 204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상관면 신리 일원 1만1,005㎡ 부지에 135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6월 용역



22일 완주군은 박성일 완주군수와 임정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업체를 선정하고 현재 지구지정 및 주택건설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 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0년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시작해 오는 2021년 상반기 착공, 2022년 8월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관면 주민들과 완주군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특색있고 활력 넘치는 마을정비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이다. 임정수 LH 전북지역본부장은 "양질

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과 다양한 마을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거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이후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같이 고민하고 분야별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 사업내용에 내실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중복 기자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 구성

위원장에 이병철 의원, 부위원장에 김주택 의원 선임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병철 의원, 부위원장은 김주택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철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사업

과 시정 전반에 관해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평가 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위법·부당행위,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었던 불합리한 관행 등을 바로잡는 감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주택 부위원장도 "이병철 위

원장과 함께 시민의 생각을 잘 헤아려 빈틈없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는 김제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김제시의회 홈페이지와 플래카드 게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한 후 시민 제보를 받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다정다감한 우리가족' 가족캠프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보육분과가 가족캠프를 진행, 육아에 대한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22일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보육분과는 최근 경천애인에서 오전 10시부터 관내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가정 등 50여명과 함께 '다정다감한 우리가족'이라는 주제로 가족 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목공예체험과 버블쇼, 신나는 레크레이션 등으로 진행되어 바쁜 일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가족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한 추억을 쌓았다.

캠프에 참여한 한 가족은 "가족들과 평소보다 더 많이 웃고 많은 대화를 하며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원주=이중복 기자



김제시는 오는 26일 오전 11시30분부터 5시까지 김제실내체육관에서 '2019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어우렁 더우렁 좋은날

김제시 26일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오는 26일 오전 11시30분부터 5시까지 김제실내체육관에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 '2019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김제시 주최, 김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라경)가 주관하며 체험마당(11:30~14:00), 기념식 및 축하공연(14:00~14:40), 화합 한마당(14:40~17:00)으로 진행된다.

체험마당은 6개국(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일본, 한국)의 다양한 음식체험과 세계전통의상 입고 찍은 사진으로 핀버튼 만들기, 세계 여러나라 국기 아광팔찌 만들기, 전통떡 절편만들기, 예코 손수건 만들기 등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며, VR·3D체험, 통기타·플룻·쑈바렌스 리듬에 맞춘 즉석 플래시몹 공연 등 부대행사도 마련하였다.

한편 화합한마당에는 매직쇼(조이벤트)와 장기지랑, 도전 골든벨,

세계 전통놀이(베트남/뿔뿔, 필리핀/타니클링, 중국/티코대, 태국/왕-까-쌌, 한국/고무신 던지기) 등 시민 모두 즐거운 화합의 시간으로 한껏 흥이 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은 김제시의 지원으로 매년 진행되는 글로벌 문화행사로서 모든 체험과 식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올해는 더 많은 지역 기관·단체 등이 행사를 위해 힘을 보태주고 있다.

특히, 김제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손누리이야기협동조합, 익산 STEAM(익산과학고사연구회), 사단법인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제이엘 이벤트 등의 지원과 대한민국마트,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국민은행 김제지점, 농협중앙회 김제지부, 동김제농협로컬푸드,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김제 등의 후원에 힘입어 예년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13회 '금구면민의 날' 대동한마당 행사 준비 박차

김제시 금구면(면장 서재영)은 22일 금구면민의 날 행사를 위한 금구면발전협의회 월례회의를 가지는 등 금구면민의 날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제13회 금구면민의 날 세부계획을 확정하는 자리로, 금구면발전협의회원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면민의 날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열된 논의를 펼쳤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발전협의회원들은 올해 면민의 날 행사가 그동안 개최됐던 행사보다 발전된, 그리고 면민

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일심단결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금구면민의 날 행사는, 매년 주민 2,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화합의 장으로 출라후프 챔피언, 고무신 멀리 던지기 등 면민이 하나 되는 명랑운동회와 풍물놀이, 행복 노래교실, 라인댄스 등 지역 내 활동하는 동호회 장기지랑 및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면민 노래자랑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